

내년 3월 영국 EU 탈퇴 EU 또 경제위기 올 수도

잉글랜드 은행 “파생상품 시장 38조달러 금융위기 발생”

내년 3월 29일 예정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다시 한번 유럽연합(EU)을 경제위기로 빠뜨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잉글랜드 은행은 3일(현지 시간) “파생상품 시장에서 내년 초 38조달러 규모의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잉글랜드 은행은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브렉시트 이후 금융 분야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겠지만 영국보다는 유럽 쪽에 더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장 큰 문제는 장외시장에서의 파생상품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러한 위기감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럽의 파생상품 시장은 대부분 영국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비EU 국가들과의 연관성도 상당하다.

잉글랜드 은행은 “브렉시트 이후

에는 영국과 다른 유럽경제공동체(EFTA) 국가들이 더 이상 타 지역 장외 시장에서의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기존에 유지되고 있던 파생상품 거래계약 역시 일정한 조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조정이 실패한다면 장외 파생상품의 규모가 38조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세계경제에 다시 한번 메가톤급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잉글랜드 은행은 또 “영국은 브렉시트 협상 과정에서 금융 규제 조정을 명시해 놓았으나 EU 집행위원회는 아직 이를 검토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영국과 EU 국가들 사이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EU 국가들은 “오히려 영국 은행들이야말로 브렉시트 이후를 대비하고 있지 않다”고 비난했다.

임성훈 기자 Shyim98@

올 4분기 국제유가 배럴당 최고 105달러까지 오를 듯

어게인캐피탈 킬더프 박사 전망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CNBC는 3일 원자재 투자 회사인 어게인캐피탈의 전략분석가 존 킬더프 박사의 전망을 인용, 미국의 주종 원유인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이 올 4분기에 배럴당 85~100달러에 이르고 최고 105달러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꽤 있다고 내다봤다고 보도했다.

또한 존 킬더프는 브렌트유는 올 하반기 배럴당 110~115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점쳤다.

국제유가가 이처럼 오를 것으로 보는 논리적 근거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산 원유 봉쇄 때문이다. 미국이 핵 협상을 이유로 이란산 원유를 봉쇄하기로 하면서 중동지역에서는 공급 부족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제유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은 씨티그룹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김대호 기자 tiger8280@



재정개혁특위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향은? 3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내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병구 위원장(오른쪽 둘째)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최종확정했다.

현대차, 내년 인도서 SUV 전기자동차 선보인다

소형 SUV ‘코나EV’ 유력 생산도 현지에서 이뤄질 듯

현대자동차가 내년 인도에서 스포츠 유틸리티차량(SUV) 전기자동차를 출시한다. 생산도 현지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내년 인도에서 SUV 전기차를 출시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현재로서는 소형 SUV 전기차 ‘코나EV’가 유력하다.

현대차는 국내에서 가져와 판매하



현대차 SUV 코나 전기차.

는 방식이 아니라 현지 생산시설인 첸나이공장에서 직접 생산한다는 방침

이다. 이를 통해 인도 첸나이공장을 주요

해외 생산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게 현대차의 전략이다.

현대차 첸나이공장은 1998년 9월 현지 자동차 생산·판매를 시작한 이래 지난달 초 누적 생산 대수 800만대를 돌파했다.

현대차의 해외 현지 공장 가운데 누적 생산량 800만대를 넘긴 것은 중국에 이어 인도가 두 번째다.

한편 코나EV는 1회 완전 충전으로 406km를 달릴 수 있다. 배터리 충전 시간은 64kWh 배터리 장착 모델 기준으로 100kW 급속충전 시 54분, 7kW 완속 충전 시 9시간 35분이다.

김병용 기자 ironman17@

남북 통일농구대표단 평양 도착

김정은 위원장 깜짝 참가 가능성

남북 통일농구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단과 정부 대표단이 3일 평양에 도착했다. 모두 네 차례의 경기가 진행되

는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날 오전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통일 농구경기에 참가하는 남북 선수와 대표단이 성남 서울공항에서 군용기 2대로 방북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

는 대표단은 남녀 선수단 50명과 정부 지원단 15명, 기자단 등 101명으로 구성됐다.

통일농구경기 개최는 2003년 10월 평양 정주영체육관 개관 기념 경기 이후 15년 만이다.

남북 선수들은 4일 혼합방식으로 한 팀을 이뤄 경기를 하고, 5일은 각각 팀을 구성해 친선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조명균 장관은 리선권 조평통 위

원장 등 북측 고위급 인사들과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는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해 성사된 데다 김 위원장이 농구광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농구장을 깜짝 방문할지 주목된다.

방북단은 경기 일정을 마무리한 뒤 6일 오후 군 수송기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건설공사 안전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국토교통부 한국시설안전공단

□ 약속 1: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집중 추진하여 2022년까지 건설사고 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습니다

(사망인원율, %/100)

건설현장 사망인원율 50% 이하로	'16년 1.76	'18년 1.50	'22년 0.70
--------------------	-----------	-----------	-----------

*사망인원율: 근로자 1만명 중 산재 사망자수

□ 약속 2: 건설현장 안전정책의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 생명 중심으로 바꿔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겠습니다

- 발주자-원수급자 책임 강화
안전의 의무를 끝내고 발주자-원수급자에게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책임을 부여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제도 현장 이행 집중점검
안전점검 조직 확대, 안전관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현장안전을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꼼꼼히 확인하겠습니다
- 고위험 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
타워크레인 검사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강화하고 틈새점검 실시 및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신설하겠습니다
- 스마트 건설안전 관리체계 구축
스마트 건설안전 로드맵을 마련하여 로봇, 드론 등이 위험한 공사를 대신하는 신기술을 적극 개발하겠습니다